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5. 7 (목)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은행은 '준공공기관'" 李, 포용금융 또 강조…김용범에 "뜻 대로 하라"

아시아경제 https://zrr.kr/JWu0tp

이재명 대통령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면서 포용금융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
또한 준공공기관으로서 은행의 성격을 거론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급에 대해 공개적으로 힘을 실은 발언

'착한 금융'도 별수 없네…취약계층 소액대출 연체율, 무려 40%

이데일리 https://zrr.kr/tKU1bt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연체율이 40%에 육박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책서민금융 상품으로, 연체와 재대출이 동시에 늘면서 포용금융 확대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

2금융권 예금 금리 일제 상승…저축은행 16개월만에 최고

연합뉴스 https://zrr.kr/PVgQT5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24%로, 작년 1월(연 3.33%)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수신 잔액이 수개월째 감소하자 수신 방어를 위한 해결책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

기업 대출이자, 가계보다 더 싸졌다

헤럴드경제 https://zrr.kr/VqrLD4

3월 신규 취급된 5대 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는 평균 4.09%, 가계대출 금리는 4.30%로, 기업대출 금리가 0.21%포인트 낮아지며 역전 현상이 굳어지고 있는 모습
고강도 부동산 규제 속에 시장금리까지 오르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한 것과 달리 기업대출은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기업 모시기' 경쟁으로 금리가 낮아진 결과

"정부가 손실 20% 보전"...22일 국민성장펀드 선착순 판매

서울경제 https://zrr.kr/DHGQLb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22일부터 3주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
정부가 원금 20%까지 손실을 보전해주고 최대 40%의 소득공제도 제공

이젠 해외개미들이 'K주식 직구'

매일경제 https://zrr.kr/UAPp5O

증권사들이 잇달아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직접 사들일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 새로운 외국인 수요가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현대해상, 호르무즈 급파…HMM 나무호 보상규모 파악 착수

머니투데이 https://zrr.kr/8GjZBd

현대해상 등 국내 보험사들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었다 폭발사고가 발생한 HMM 상선 나무호에 대한 보상규모 파악에 나서
나무호는 5개 손보사를 통해 선박보험 등에 가입해있고 이중 간사인 현대해상 지분이 가장 커… 이들은 코리안리 재보험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대 보상한도는 약 1000억원 규모

국내 보험사, 해외 실적 상승세…한화생명이 견인

전자신문 https://zrr.kr/C6zPKJ

지난해 국내 보험사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이 1억97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90만달러 증가, 해외점포 자산은 162억4000만달러로 전년말(73억4000만달러)대비 대폭 증가
지난해 한화생명은 인니 은행 노부뱅크와 미 증권사 벨로시티를 인수해 해외 공략을 가속… 기존 한화생명 인니법인 리포 손보는 한화손보로 매각해 지배구조를 정리한 상태

업비트, 공격적 상장으로 시장 점유율 70% 회복

조선비즈 https://zrr.kr/xp5FTv

지난달 50% 초반까지 떨어졌던 가상 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70% 가까이로 상승
지난달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은 총 10개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많았으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논란을 일으킨 코인도 무리하게 상장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

1년 만에 반토막 난 가상자산…스테이블 코인만 '나홀로 강세'

주간조선 https://zrr.kr/6r2AdM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보유금액은 6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21조8000억원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
반면 스테이블 코인 보유금액은 증가세… 2024년 7월 말 885억원에서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12월 말 8723억원까지 확대됐고, 지난 2월 말에도 6071억원 수준을 유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